

“아르테이아 등장 후 게임에 신바람 분다”

새 전기 맞은 리니지2

6년 만에 새 종족...복귀 계정 200% ↑
저레벨대 커뮤니티 증가로 활기 되찾아
유저간담회 등 '소통의 장' 자주 가질 것
올해 리니지2 10주년...고객들 성원 덕

“바람의 종족 ‘아르테이아’로 ‘리니지2’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10년 전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 3D 시대를 연 ‘리니지2’가 또 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리니지2’는 2003년 10월 상용화 후 ‘혼돈의 연대기’와 ‘혼돈의 왕좌’라는 두 개의 큰 타이틀로 15회에 걸친 크고 작은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2004년엔 ‘바초해방전쟁’이라는 인터넷상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상용화 8년이 되던 해인 2011년엔 세 번째 타이틀 ‘파멸의 여신’을 공개했고, 최근엔 또 다시 ‘아덴 대서사시’를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아르테이아’ 업데이트는 ‘아덴 대서사시’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다. 1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갖는 기본적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해 다이내믹한 전투 요소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선 ‘리니지2’의 개발 및 사업담당자들에게 ‘아르테이아’에 대해 들어봤다.



10주년을 맞은 ‘리니지2’가 최근 6년 만에 새로운 종족 ‘아르테이아’를 추가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엔씨소프트 조상원 콘텐츠사업팀장과 강정수 커뮤니티사업팀장, 남택림 개발실 기획팀장, 안지섭 시스템디자인팀장.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 ‘아르테이아’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아르테이아’는 바람의 종족으로 빠른 속도와 강한 체력, 물질을 다루는 연금술이 특징이다. 근접 공격에 강한 마법사형과 근접 물리공격을 하는 전사형 캐릭터 2개의 클래스로 구성돼 있다.”(강정수 커뮤니티사업팀장)

- 6년 만에 새로운 종족 출시다. 반응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 지표들 보면 액티브 유저는 19%, 복귀계정은 약 200% 올랐다. 새로운 종족이 나오기 전에는 게시판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는데, 업데이트 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조상원

콘텐츠사업팀장)

- 게임 내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높은 레벨 위주로 진행되던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대에서도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10레벨부터 최고레벨까지 모두 다 소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리니지2’가 기존보다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강정수)

- 이번 업데이트가 갖는 의미는.

“‘리니지2’는 빠르고 호쾌한 전투를 하는 게임이다. 기존 ‘리니지2’의 재미와 특성을 하나씩 찾아갈 계획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장 찾고 싶었던 것은 게임 내 ‘활기’였다. 그런 부분을 되찾고자 노력했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안지섭 시스템 디자인팀장)

- 휴면유저를 위한 콘텐츠 개발은 없나.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를 준비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 얘기를 들었다. 내년에는 유저간담회와 소규모 행사 등 접점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강정수)

- 유저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올해로 ‘리니지2’는 10주년을 맞았다. 고객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그 공을 돌려 드리고 싶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남택림 개발실 기획팀장)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리니지2 새 종족 ‘아르테이아’

속 시원한 ‘얼큰육개장국밥’...연말 숙취해소에 강추!

■ 술독 잡는 먹거리들

얼큰·시원 ‘컵국밥 큰컵’ 3종 숙취에 딱
헛개 음료,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도움
홍초의 신 맛은 속쓰림 완화에 큰 효과

송년회 등 각종 연말 모임이 많은 시기다. 연일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숙취에 시달리게 마련. ‘숙취해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큰한 해장국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국밥부터 상큼한 과일음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에서 간단히 숙취를 해소하는 법을 살펴봤다.

음주 다음 날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얼큰한 국물과 밥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상 청정원에서는 기존 판매 제품보다 큰 사이즈의 ‘컵국밥 큰컵’ 3종을 선보였다.

이중 ‘얼큰육개장국밥’은 진한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매운 홍고추의 맛을 더해 숙취해소에 안성맞춤이다. 신송식품에서도 끓는 물을 부어 먹는 ‘즉석국밥’을 판매 중이다. ‘소고기 육개장’, ‘소고기 된장국’, ‘시원한 콩나물 볶아국’으로 숙취 해소를 위해 찾는 소비자들이



▲ 대상웰라이프 ‘헛개나무 열매’ ▲ 청정원 ‘얼큰육개장국밥’ ▲ 청정원 ‘홍초’

겨냥했다.

숙취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헛개 음료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며, 숙취에 의한 갈증을 풀어준다. 대상웰라이프 녹즙은 ‘헛개나무 열매’를 판매 중이다. 국산 토종 헛개나

무와 열매를 사용했으며, 오리나무, 오미자, 북분자 등을 함께 담았다. CJ제일제당은 여성용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 레이디’를 출시했다. 헛개컨디션의 주요 성분에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 성분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광동제약은 ‘함찬하루 헛개차’, 롯데칠성음료는 ‘오늘의 차 아침헛개’ 등 헛개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과일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일은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해 탈수와 숙취 해소에 좋다. 특히 과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동안 소비되는 비타민C를 보충해줘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매일유업이 출시한 ‘플로리다 내추럴’은 생오렌지, 생자몽을 바로 잔착즙 주사. 비타민이 풍부해 몸 속 독소를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는다.

오스스프레이 ‘크랜베리주스’, ‘루비레드’ 등도 풍부한 비타민과 상큼한 맛으로 숙취 후 피로를 떨치고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밖에 롯데칠성음료 ‘한라봉과 유자레몬’, 웅진식품 ‘내사랑 유자C’, 해태음료 ‘썬키스트 허니유자’ 등은 꿀, 유자 등이 함유되어 있어 좋다.

여로부터 숙취에는 속쓰림 완화 효과가 있는 신맛을 응용한 민간요법이 사용되어왔다. 청정원 ‘홍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에 그만인 헛개나무 농축액이 들어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음으로 잃기 쉬운 식욕도 신맛으로 되찾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헬스케어트가 내놓은 ‘헬스온’은 스마트폰에 기록된 걸음 수로 데이터를 만들고, 의료진과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건강정보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신개념 소셜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진제공 | 헬스케어트

걷기만 해도 데이터가 쑥쑥

헬스케어트, 소셜 건강관리 앱 ‘헬스온’ 출시
걸음 수 적립...SKT 데이터 전환 사용 가능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해도 이동통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투자회사 헬스케어트는 신개념 소셜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온’을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헬스온은 액티비티 트래커(활동량 측정기)를 통해 스마트폰에 기록된 걸음 수로 데이터를 만들고,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다.

헬스온은 별도 구매하는 액티비티 트래커 ‘헬스온 사인’ 또는 티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헬스온 페도미터(활동량 측정계)로 걸음 수를 기록한다. 손목밴드나 목걸이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헬스온 사인의 경우 수심 50m 완전방수, 3개월간 충전이 필요없는 코인배터리가 특징이며, 소비자는 13만9000원이다. 전국 편의점 매장과 이매진샵,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측정된 신체 활동량은 ‘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사용하거나, SK텔레콤 데이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헬스온 서비스는 또 건강목표 권고, 걷기나 계산, 사용자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천해 준다. 사용자는 4~12주 동안 매일 새로운 건강미션을 수행해 생활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다. ‘헬스온’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한편 헬스케어트는 26일부터 한 달간 11번가에서 헬스온 사인’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러닝머신, 미니바이크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김명근 기자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스마트TV용 앱 개발 도구 선보여
삼성전자는 스마트TV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개발 도구 ‘SDK 5.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SDK 5.0’이 기존 ‘SDK 4.5’와 가장 다른 것은 삼성 스마트TV와 연동 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TV 앱을 이용해 조명이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기기 제어가 가능하다. 또 HTML5 표준을 사용해 세련된 애니메이션 효과와 디자인으로 더욱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 ‘SDK 5.0’은 내년 1월 6일부터 삼성개발자포럼 사이트(www.samsungdforum.com)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KT ‘아이폰 블랙 프라이스’ 이벤트 진행
KT는 연말연시를 맞아 애플의 아이폰을 파격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폰 블랙 프



라이스(사진) 이벤트를 내년 2월5일까지 진행한다. 대상 기종은 ‘아이폰5’와 ‘아이폰4S’, ‘아이폰4’.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으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는 월 1만원 프로모션 할인(24개월 간 24만원)을 제공한다. ‘아이폰5’ 32GB모델을 50만8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시 적용되며 3만4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된다. 올레닷컴(www.olleh.com)의 올레샵과 전국 올레매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LG+, 스마트 비서 서비스 ‘U스폰’ 출시
LG유플러스는 스마트 비서 서비스 ‘U스폰’을 25일 출시했다. ‘U스폰’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주 이용하는 날씨, 교통, 일정, 모닝콜 등의 이용 패턴을 파악해 위치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미리 전달해주는 능동형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에게 유용할 만한 정보를 ‘적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개인의 기호에 맞는 맛집 정보 추천, 가족간의 알림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U스폰’은 LG유플러스의 앱 마켓 ‘U+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네파 ‘아웃도어 스쿨’ 30일까지 접수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김형섭)가 30일까지 전문적인 강사의 교육을 받고 익스트림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스쿨(사진)’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제7차 네파 아웃도어 스쿨의 프로그램은 두꺼



운 얼음을 깨고 물 속에 들어가 진정한 겨울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이스 다이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1월 4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펼쳐진다. 익스트림 다이빙 박연영·박재석이 강사로 나서 이론과 안전 교육, 장비 착용법을 지도하고 아이스 다이빙 실습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30일까지 네파 아웃도어 스쿨 홈페이지(school.nepa.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총 6명을 모집한다. 단, 초보자가 경험하기에는 고난도의 스쿠버 다이빙이므로 ‘드라이스트 스페셜티’ 자격 보유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